



역시 무적함대... 유로 첫 4회 우승 '감격'

유로2024 우승국 '스페인'

결승전서 잉글랜드 2-1 격파
1964-2008-2012년 이어 정상
핵심 중원 '로드리' MVP 선정
17세 도움왕 '야말'도 존재감 굳혀

'무적함대' 스페인이 12년 만에 유로(유럽축구선수권대회) 정상을 탈환하며 4회 우승을 달성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8위 스페인은 15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 2024 결승전에서 5위 잉글랜드를 2-1로 제압했다. 스페인은 1964-2008-2012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유로 정상에 섰다.

이 대회 전까지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3회로 최다 우승 공동 1위였으나 스페인이 이날 독일의 안방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사상 첫 4회 우승팀이 됐다.

유로 2008, 2010년 남아공월드컵, 유로 2012를 연이어 제패한 이후 침체를 겪었던 스페인은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UNL)와 이번 유로 정상에 오르며 세대교체의 성공과 함께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반면 잉글랜드는 2회 연속 유로 결승에 진출하고도 또다시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로 불리지만 1966년 자국에서 개최한 월드컵 외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직전 유로 2020에서는 결승에서 이탈리아에 승부차기 끝에 졌고, 이번엔 스페인에 패했다.

세계 최고 골잡이로 꼽히면서도 소속팀



스페인축구 대표팀의 주장 알바로 모라타(앞줄 가운데)가 15일(한국시간) 유로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챔피언에 오른 뒤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선수들과 환호하고 있다.



미겔 오야르사발(오른쪽)의 골 세리머니. 연합뉴스

역대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국

연도	우승국	준우승국
2024	스페인 (4회)	잉글랜드
2020*	이탈리아	잉글랜드
2016	프랑스	프랑스
2012	폴란드-우크라이나	이탈리아
2008	오스트리아-스위스	독일
2004	포르투갈	포르투갈
2000	네덜란드-벨기에	프랑스
1996	잉글랜드	독일
1992	스웨덴	덴마크
1988	독일(서독)	네덜란드
1984	프랑스	프랑스
1980	이탈리아	독일(서독)
1976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1972	벨기에	독일(서독)
1968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1964	스페인	스페인
1960	프랑스	프랑스

*코로나19로 2021년 개최. 자료: 유럽축구연맹(UEFA)

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좀처럼 우승하지 못하는 해리 케인의 '무관 징크스'도 이어졌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스페인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며 우승을 이끈 로드리에 돌아갔다. 경기 전날인 13일 17번째 생일을 맞이한 스페인의 '갯벌' 라민 야말은 베스트 영플레이어로 선정됐다. 야말은 이번 유로를 통해 스페인 축구의 차세대

대표주자로 존재감을 굳혔다.

1골을 포함해 공격 포인트는 5개를 기록한 그는 이번 유로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작성한 선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최연소라는 상징성을 차지하더라도 이번 대회 베스트 영플레이어 상이 야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했다.

이날 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2016년 대회 때 헤나투 산시스(포르투갈)의 18세327일

을 크게 앞당기며 유로 결승전 최연소 출전 기록을 새로 쓴 야말은 도움 하나를 추가하며 대회 도움왕(4개)에도 올랐다.

득점 부문에선 케인과 스페인의 다니 올모 등 6명이 3골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날 스페인에선 베테랑 알바로 모라타가 최전방에 나서고 니코 윌리엄스와 올모, 야말이 뒤를 받쳤다. 케인을 선봉에 세운 잉글랜드는 주드 벨링엄과 필 포든, 부

카요 사카가 2선을 형성했다.

부상이 의심되던 로드리를 빼고 마르틴 수비멘디를 투입한 스페인은 후반 1분여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야말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페널티 아크 쪽으로 이동하며 보낸 패스를 니코 윌리엄스가 골 지역 왼쪽으로 쇄도하며 왼발로 골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기세를 올린 스페인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며 수세에 몰린 잉글랜드는

주장 케인을 올리 왓킨스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후반 41분에는 결정타를 날렸다. 왼쪽 측면에서 날아온 마르크 쿠쿠레야의 크로스를 교체 멤버로 투입된 미겔 오야르사발이 골문 앞으로 쇄도하며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오야르사발은 후반 23분 모라타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알카라스, Wimbleton 2연패 석권까지... 스페인 기쁨 두 배

2003년생 카를로스 알카라스(3위·스페인 사진)가 올해 프랑스오픈과 Wimbleton을 휩쓸며 최강자의 자리에 우뚝 섰다. 알카라스는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끝난 Wimbleton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노박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를 3-0(6-2 6-2 7-6(7-4))으로 완파했다. 지난해 결승에서도 조코비치를 물리친 알카라스는 2022년 US오픈, 지난해 Wimbleton에 이어 올해는 프랑스오픈과

Wimbleton을 석권해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횟수를 4회로 늘렸다. 이로써 알카라스는 이달 말 개막하는 제33회 파리올림픽 금메달 가능성도 한층 밝게 했다. 올해 파리올림픽은 6월 프랑스오픈이 열렸던 스타드 롤

랑가로스에서 펼쳐진다. 알카라스는 자신의 15차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우승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번을 클레이코트에서 달성했다. 최근 추세로 보면 파리올림픽에서 알카라

스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는 안니코 신네르티(위 이탈리아)와 조코비치 정도가 지목된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프랑스오픈 8강전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기권했으며 이후 곧바로 수술받아 Wimbleton에는 오른쪽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뛰었다. 알카라스는 파리올림픽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한 조로 남자 복식에도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단복식 석권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